

기준금리 1.25% 동결...인플레 압박에도 '속도조절'

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해...오미크론·경제 회복 등 고려 물가 오름세·주요국 통화정책 등 확인 후 4~5월 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날 동결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다.

아무리 물가 상승 압력이 커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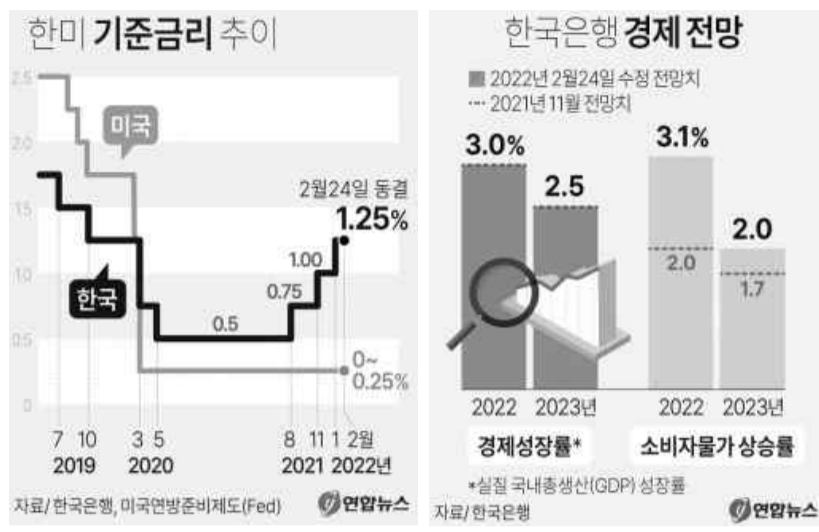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000억원 정도 불어난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새 한은 총재가 주재할 4월 또는 5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0%로 한 차례 더 올리더라도 통화 긴축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추가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 두발언에서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도 여전하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계속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0%에 이를 것'이란 시장 기대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그런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이 기준금리를 예상할 때 올 한해 우리의 성장세, 물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 기대의 밑바탕이 되는 성장·물가·대외 여건의 흐름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간다면 물가 오름세도 높고 금융 불균형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금통위 다수 의견"이라며 "1.5%로 앞으로 한 차례 더 올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 기조에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답했다.

이러 "추가 인상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물가,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보다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페트병, 친환경 가방으로 돌아와요”



효성티앤씨 직원들이 새내 페트병 수거함 앞에서 친환경 섬유 리젠으로 만든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티앤씨 페트병 수거 캠페인

효성티앤씨는 지난 14일부터 본사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페트병 수거(순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사무실 개인컵 사용하기'에 이어 두 번째 실행하는 임직원 참여 친환경 캠페인이다.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시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게 효성티앤씨의 설명이다.

효성티앤씨는 오는 6월까지 1차, 6월부터 12월

까지 2차 페트병 수거를 진행한다. 차수마다 페트병이 4000개 이상 모이면 직원들에게 가방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페트병 8000개 이상 수집이 목표다.

직원들이 받는 가방은 친환경 스타트업 '플리즈마'가 '리젠'(regen)으로 만든 파우치, 크로스백 등 4종이다. 리젠은 효성티앤씨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섬유로 최근 가치소비 중 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사를 넘어서 지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의 아름다운 도로 사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모

10월31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호남의 강과 호수, 바다 건너 산과 땅을 이어주는 우리동네 길 탐방이야기'를 주제로 '제5회 호남의 아름다운 도로 사진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 공모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대상은 올해 주제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국도변을 따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해상교량, 터널, 교차로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경관, 스토리 사진(4컷 이상) 등으로, 공사중인 도로현장 사진도 공모대상에 포함된다.

응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주제, 작품설명, 촬영스토리 등 내용을 작성한 후 사진(개인별 최대 5작품 이내)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가작 10점 등 총 14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익산국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량, 터널,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과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로경관을 보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관광지 방문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전, 지난해 영업손실 5조8천억원...역대 최대

고유가에 연료비 부담 확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영업손실 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고유가에 연료비 부담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4조863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았을 때 기록한 연간 영업손실 2조7981억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지난해 매출은 60조5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순손실은 5조254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4분기 영업손실은 4조7303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933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같은 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15조5184억원과 3조6736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전력재무구조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었다. 전력판매량은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전기요금(연료비 조정요금)은 4분기에 한차례 올랐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력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조6136억원, 5조9069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설치하고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정기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2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남도회는 전문건설계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11개사에게 전남도지사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유관기관 및 회원사 29곳에게는 도회장 포상을 수여했다.

이밖에 전문건설 전남도회 장학회는 올해 지역 회원사 및 지역 복지시설 대학생 55명에게 총 4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문건설 전남도회 장학회는 전국 전문건설 사·도회 중 유일한 장학회로, 1993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3869명의 학생들에게 32억68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앞서 전남도회는 지난해 전문건설 위상 및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전문건설 사·도회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성수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 발전과 회원님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전문건설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